

전 영 애 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우수강의 시리즈 CD로 제작된 〈독일 명작의 이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학 수업〉을 운영한 전영애 교수를 만났다. 전영애 교수의 〈독일 명작의 이해〉는 지난 몇 년 간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수업이다. 이 수업이 호응을 받는 데는 전영애 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인터뷰에 잘 드러나 있다. 특별한 교육관이나 교육 철학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전영애 교수의 이 CD에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 승화되고,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 창조적이고 뛰어난 결과물로 완성시키는 수업 과정이 담겨 있다.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별 토론, 글 강평회, 파우스트 연극 엠티, 글모음 발표 등이 있다. 다음은 전영애 교수와의 인터뷰이다.

전영애 교수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같은 대학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는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 파울 첼란의 시』(문학과 지성사, 1986) 『독일의 현대문학: 분단과 통일의 성찰』(창작과 비평사, 1998), 『카프카 나의 카프카』(시집, 민음사 1996), 『바이마르에서 온 편지』(문학과 지성사, 1999) 등이 있으며, 『나누어진 하늘』(민음사, 1989) 『변신 · 시골의사』(민음사, 1998) 『유리병 속의 편지: 뿌리 뽑힌 유대인의 노래』(한마당, 1999) 『데미안』(민음사, 2001) 등 많은 역서가 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독일 명작의 이해> 과목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전영애 교수: 독일 문학을 다룹니다만, 독일 문학을 방편으로 한 문학의 이해라고 해야겠지요. 이 수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이 텍스트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써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그런 사항을 학생들에게 강조하게 된 까닭이 따로 있는지요?

전영애 교수: 지금은 정보의 흥수 시대입니다. 정보는 어디서든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죠. 널려 있는 정보가 모두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힘이 그전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는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정확하게 사물을 보고 치우침 없이 생각하는, 즉 자신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는 힘이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힘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는 수업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께서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강의를 구성하시는지요?

전영애 교수: 우선 학생들의 책읽기가 강의의 밑받침이 됩니다. 강의의 절반 정도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강의

는 주로 책읽기와 토론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혼자서 개괄하기 어려운 역사, 예술, 문학의 흐름에 대해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짚어 줍니다. 나머지 책을 읽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몫이지요. 제가 하는 역할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과 수업을 진행하는 것 정도일 뿐입니다. 수업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그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문학을 방편으로 삼게 된 계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영애 교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거의 진행자입니다. 강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은 학생들이고요. 강의를 하면서 제일 비중을 두는 부분은 학생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밖으로 우러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문학이 어떻게 방편이 되었는지는, 문학은 무엇보다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을 통해서는, 그것이 피션 인데도, 나름의 조건 속에서 있는 다양한 삶을 만나게 됩니다. 한두 번의 대화로도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작가가 모든 것을 쏟아 넣은 책 한 권을 읽는다는 것은, 더구나 오랜 시간을 넘어서 남아 있는 명작을 읽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간접적으로 여러 인생을 사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는 ‘지식’을 얻는 일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의 이해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이 당연한 원론을 학생들이 체험했으면 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들의 이해를 돋는 차원에서만 진행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활용하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영애 교수: 비중을 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인데요. 제가 역사나 예술, 문학의 흐름은 간혹 짚어 주지만, 문학개론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강의의 첫 부분은 언제나 ‘내가 친구들에게 권하고 싶은 한 권의 책’입니다. 처음 몇 주일 동안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들 모두 친구들 앞에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그것을 권하는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이야기에 따라 제가 조금씩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비중 있는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좀더 많은 코멘트를 하고, 실생활에 관련된 책일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코멘트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학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 좋은 문학작품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수업의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문학에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들이 권하는 한 권의 책’을 듣고 난 이후에, 조를 짜서 함께 책을 읽게 합니다. 먼저 좋은 극작품을 한 편을 역할을 나누어 읽습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마만큼 연기도 곁들여지곤 하더군요.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은 색다른 경험이어서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작품성이 높으면서도 흥미로운 현대의 작품을 택하고, 다음으로는 내친 김에 높은 산을 먼저 올라가는 생각으로 우리 수업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파우스트〉를 함께 읽습니다. 사실 12,111행의 운문으로 이루어진 〈파우스트〉를 혼자 번역으로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친구들과 함께 배역을 나누어 책을 읽는 ‘재미’를 경험했기 때문에 힘겨운 대작도 읽어 갑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조를 짜고 역할을 나누어서, 파우스트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학생들이 조별로

편한 시간에 모여 6~7번, 심지어는 8~9번까지 모여서 함께 두꺼운 책을 읽어 나가요. (그 사이 수업에 와서는 친구들이 소개하는 책 이야기를 듣고요.) <파우스트>같은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성취감이 굉장히 큰데다가, 그 때쯤이면 학생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동아리도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특별한 행사는, <파우스트> 연극 기행을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주말 특별 수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 전원이 둘러앉아 자신이 <파우스트>에 대해 쓴 글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제법 시간이 걸리지만 그 많은 발표를 다 듣고 나면 작품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또 한 부분은 공

연으로, 각 조별로 좋았던 부분을 친구들 앞에서 공연하는데, 처음에는 책을 들고 낭독하는 공연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점차 본격적인 연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의상까지 준비했고, 굉장히 재미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물론 좋은 추억이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학생들끼리 서로 매우 가까워집니다. 학기가 끝나고도 서로들 만나는 것 같더군요. 유사한 강의를 찾아가서 수업을 듣다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계속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 졸업생들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업에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 게시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글을 올리라고 저 혼자 코멘트하고 격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빠져도 될 정도로 이야기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현재 수천 개의 글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수업의 큰 소득입니다.



<독일 명작의 이해> 과목의 특별한 행사의 하나로 <파우스트> 연극 기행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파우스트>의 공연을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 간의 우애도 깊어진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파우스트> 연극 기행이 끝나고 또 어떤 강의를 진행하십니까?

전영애 교수: <파우스트>가 끝난 다음에는 중요한 독일 작가들의 작품을 작가별로 읽습니다. 작품은 정하지 않고 작가만 정해서, 같은 작가의 작품 중에서 각자 읽고 싶은 작품을 읽어 오게 합니다. 수업에서는 같은 작품들을 읽은 사람들끼리 한 조가 되어서 토론합니다. 조별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친구들의 글 몇 편을 함께 읽는 강평 시간이 있습니다. 작가나 작품을 스스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나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다루는 작가는 학생들이 가깝게 느끼는 해세에서 시작해서 문학성이 높은 카프카나 토마스 만 같은 작가를 다룹니다. 또 참여 의식이 강한 브레히트, 하이네와 같은 작가도 다루고요, 그 외에도 동시대의 문학으로서 분단 문학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독일 문학을 훑어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저 독일 문학을 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치열하고 진지한 문학작품의 형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역사나 사회의 연관성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치열하게 그려지는지를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한 시대의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극복되는지 살펴봅니다.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문학이 강의의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점 하나를 학생이 더 가지게 됩니다. 외국 문학은 구체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떨어져서 다른 것을 봄으로써 내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을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체험입니다. 획일적인 생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인가 자기 나름의 것을 완성한다는 뜻에서 학생들이 마지막 과제물을 만듭니다. 수업에는 교재가 없는데, 그 대신 학생들은 마지막 과제물로 책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 한 학기 동안 쓴 글, 모은 글, 모은 자료들을 묶어 제본하는 정도입니다마는, 자신의 첫 책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의 ‘책’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접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쓰기도 하나요?

전영애 교수: 네, 가끔씩 작품을 쓰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간 대학문학상을 수상한 학생들도 몇 있었고요. 그러나 꼭 문학작품이 아니어도 각자 최대의 창의성을 가지고 책을 만들다 보니 정말 작품 같은 ‘책’들이 나옵니다. 소개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독일 명작의 이해〉의 마지막 과제는 한 학기 동안의 글과 자료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 학생이 자신이 만든 ‘책’을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하게 모아서 만드는 보관할 만한 참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수업으로부터 일깨워진 관심을 개성적으로 펼쳐 놓기도 합니다. 글 대신 작곡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작품은 스위스 현대 음악에 당선되었는데, 카프카의 〈볕 앞에서〉 단편을 읽은 후 작곡한 것 이었습니다. 과제는 아니었고,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업에서 가졌던 관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었지요. 어떤 학생은 자신이 즐겨 읽은 해세의 〈수레바퀴 밑에서〉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고, 해세 생일날에 맞추어 찾아간 해세의 고향에서 그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세계 도서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책입니다. 〈파우스트〉를 함께 읽고 나서, 고테의 고향인 바이마르에 가서 〈파우스트〉 원어 공연을 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학기 결과물로서 학생들이 내놓은 책 한 권 한 권은 모두 소중한 작품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이 늘 기대하신 것 이상의 성과물을 학생들이 제출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의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거나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굉장히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이전 학생들에 비해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이 없습니까?

전영애 교수: 특별히 그런 점은 없습니다. 흔히 ‘요즘’ 학생들이 책을 적게 읽는다거나 이전 학생들과의 이런저런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책을 덜 읽는다면 기회가 적었던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이 수업도 그런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이런 점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전영애 교수: 아주 드물게, 학부제 탓인지, 성적에 매달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습관을 잘 못 벗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은 하고 싶은 공부, 좋아하는 것을 실컷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들을 열게 하고 학생들을 끌어내게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전영애 교수: 글쎄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인데, 강의하는 사람의 학문적인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거의 저절로 찾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아직 늘 찾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좋은 말씀이십니다. 학문적 열정과 학생에 대한 사랑

만 있으면 학생들에게서 저절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영애 교수: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워 본 경험을 가지고 부모 노릇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내지요.

교수학습개발센터: 지금까지 바람직한 강의로 구체화시킨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한 단계 위에서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교육관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철학이 결국은 수업으로 구체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애 교수: 사실, 죄송스럽게도 없습니다. 특별히 기록으로 남을 만한 것은 더더욱.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의 되풀이입니다. 강의하는 사람 자신이 강의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을 아끼는 것을 학생들은 금방 느끼고요. 굳이 말해 보자면, 사랑으로 다가가서 책을 방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회를 반듯하게 바라보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식 자체라기보다 결국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 교육이 일차적으로야 지식의 전달이겠지만,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아울러 길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선생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수상은 어떤가요?

전영애 교수: 제 자신도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학문 세계가 확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하는 사람이 학자로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실한 생각과 지식, 자부심이 없으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어

편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자신이 해야 할 어떤 기본을 확실히 할 경우에 그것이 세상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구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더욱 자기 본분에 있어서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또 그래야겠지만, 그 수업이 진정으로 최선이 되자면 당연히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요. 연구와 교수가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학문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 자긍심이 없이 그것을 전달하려고 할 때는 불확실할 뿐더러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학습지원부 hwbio@snu.ac.kr



서울대학교 우수강의 시리즈 CD로 제작된 전영애 교수의 <독일 명작의 이해: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학 수업>. 이 CD는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